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3년 주님의교회 표어



467
2023.5.14.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_마가복음 9:37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2 부서초청예배 | 4 유아세례 | 6 겨자씨이야기 | 7 교회사용설명서 |
| 3 아기정원수로 | 5 목사안수 | 6 교사일기 | 8 공동체소식 |



마음도 돌아오기

아직도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종종 듣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잠잠해진 요즘입니다. 이제는 야외활동뿐 아니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다시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를 돌아보니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예전의 그곳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 여러 봉사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 바벨론 귀환포로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닌, 거룩적 회개를 통한 예배의 회복과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자비로운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함글함글

부서초청예배
장애인사역부

함께 예배하며 누리는 풍성한 기쁨

샬롬! 지난 4월 16일 주님의교회 온 성도가 장애인주일을 맞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했음을 기억함에 이어서, 4월 23일 사랑나무와 에바다 부서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나무에서는 부활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서로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요 21:15-17)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나무를 통해 부어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제물들과 은총의 감동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격려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초청 예배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바다에서는 부활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벧전 1:21-23)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실 되고 깨끗해지며 삶의 자리에서 거짓 없는 사랑의 고백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하여 드디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확장시켜 사랑의 주님이 우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는 뜻 깊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나무, 에바다 부서 예배 초청에 응해주셔서 주님의교회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동역의 끈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부서초청예배
사랑나무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의 아이들

지금은 사랑나무 식구들을 위한 주차봉사를 하며 사랑나무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하염없이 추억해 봅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14년 전인가 2009년 사랑나무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랑나무 부장으로 썼었던 후기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랑나무가 무엇인지?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창립 멤버들과 이곳저곳 다른 교회에서 드러지는 발달장애인 공동체의 예배를 참관하고 나서 주님의교회 사랑나무 부서를 만들고서 첫 예배를 드렸던 후기입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미워서 혼을 내는지, 싫어서 혼을 내는지요.

사랑을 해서 혼을 내는지를요.

의무감으로 주는 모유와 사랑을 해서 주는 모유는 성분이 다르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신 이유와 그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들이 모르는 그 원대한 뜻 때문에 이들을 만드심을 잘 압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사입니다. 보통 아이도,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모두가 천사이지요. 본인과 부모들이 원치 않은 병을 가지고 태어난 많은 아이들을 볼 때 그들의 눈동자를 쳐다보면 어찌 그리도 맑은지요. 해맑은 미소는 천사의 미소로 보입니다. '아이들은 어찌면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만큼은 영리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찌면 어른들보다 순수함이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끔은 어른들에게는 힘든 감정의 보따리를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2009년 4월 19일 사랑나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주시고 많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남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알았지만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픔을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덮어달라는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자라고 미숙한 예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결코 서두르지 않고 사랑나무에 사랑이 주렁주렁 열리는 날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공부하며 아이들과 한 몸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무 모든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나무 부서 창립 14년 후기에 사랑나무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씁니다.

신형섭 장로



가정사역원
아기정원

아기정원 27기를 수료하며

주님의교회 아기정원은 18개월-40개월의 아이와 양육자 한 명이 같이 참여하는 유아숲 주중 신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랑스러운 찬양 시간에 이어 생동감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볼 수 있는 소그룹 미술활동과 음악 및 대그룹 활동을 함으로 말씀 안에서 사회성과 신앙이 자라납니다.

이번 27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주제로 8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진행이 되면서 아기정원 공간과 분위기에 익숙해진 아기들은 점점 마음을 열고 예배와 준비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해가며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역자로서 진행을 하면서 함께하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이 컸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등교시킨 후에 이른 아침부터 걸음을 재촉하여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해 주셨고 간식, 회계, 율동, 담임교사, 반주로 정성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아기정원 선생님들의 섬김이 더욱 의미있고 소중한 이유는 선생님들 역시 아기정원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셔서 아기정원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전하고 싶은 소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정원은 아직 등원을 하고 있지 않은 아기들에게 첫 신앙생활이자 첫 사회생활입니다. 함께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의 바탕 위에서 함께 예배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씨앗과도 같은 우리 아기들이 건강한 토양을 양육자와 함께 만나 볼 소중한 기회입니다. 작은 천국과도 같았던 27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대감 가운데 23년 하반기 28기에 만나게 될 아기정원 친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23-1학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3월 9일-4월 27일 목요일(8주)

	내용	활동	활동재료	기타
3/9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 (창세기1:1)	축하해요! 케이크 만들기		입학식
3/16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창조와 예수님 (요3:16)	모빌 만들기 1,2주 내용 포함		음악활동
3/23	야외활동-양평 딸기밭 체험 예정 (9:30 출발-14:30 도착)			
3/30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28:15)	네네, 하나님! 네네 자동차 만들기		음악활동
4/6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창9:13)	무지개와 구름 만들기		음악활동
4/13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출13:22)	쿠키만들기		음악활동
4/20	나도 하나님과 약속해요 십계명(출19:5-6)	십계명 만들기		음악활동
4/27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사43:21)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액자 꾸미기		수료식

* 아기정원 일과 (매 학기 목요일 오전 10시-12시)

10:00-10:30 자유놀이 10:30-10:50 찬양과 말씀, 축복의 시간
10:50-11:15 소그룹 미술 활동, 간식 11:15-12:00 대그룹 활동

* 23년 하반기 (9-10월 진행 예정) 모집은 8월 교회 주보 광고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키울 아이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부 신조 10中>



김루아 아기 아빠: 김도균, 엄마: 강하람
하나님의 숨결을 어디서든지 느끼며 살아가는 루아가 되게 하소서. 엄마아빠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 루아도 무슨 일이 있든지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신아린 아기 아빠: 신창화, 엄마: 박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선한 뜻을 닮게 하소서. 예비하신 재능과 꿈을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김이도 아기 아빠: 김남홍, 엄마: 최영선
1.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을 주위에 나눠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이삭이 되게 하소서. 2.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안재이 아기 아빠: 안동섭, 엄마: 황규정
하나님, 재이를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재이 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재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재이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재이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며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해주세요.



김하이 아기 아빠: 김세연, 엄마: 조혜빈
주님, 하이가 자신의 이름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주시고,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부모된 저희에게도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수일 아기 아빠: 양익순, 엄마: 서혜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더욱 견고한 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성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남지우 아기 아빠: 남기윤, 엄마: 강윤지
1. 지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2. 항상 사랑하며 베푸는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3.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솔 아기 아빠: 이종신, 엄마: 이선주
솔이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박단우 아기 아빠: 박준범, 엄마: 민지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배로운 아들 박단우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실한 아이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규민 아기 아빠: 채윤주, 엄마: 나윤주
축복의 자녀 규민이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민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규민이와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저희도 주님의 사랑으로 규민이를 잘 양육하는 부모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박해민 아기 아빠: 박병준, 엄마: 장혜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딸, 해민이가 건강하고 맑은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밝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해민이에게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28



목사안수소감

겸손한 목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충만 목사입니다. 지난 4년간 청년들이 ‘충(전)도사님’이라 부르는 호칭에 익숙했는데, ‘목사님’이라 부를 때마다 참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어색함과 부끄러움은 비단 바뀐 호칭 때문만 아니라, ‘목사’라는 무거운 이름 앞에 부족한 제 모습이 여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실 때마다 감사 인사와 함께 ‘겸손한 목사’로 살겠다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안수받기 전, 어떤 목사로 살아야 할까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목사는 인격과 지식, 영성은 기본이고 그 외에 갖춰야 할 덕목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만큼 이 많은 자질들을 단번에 갖춘 사람 되는 것은 참 어렵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기 위해선, 겸손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질들을 갖춰가는 사람이 되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여정의 첫발을 떼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긴 여정 속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익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목사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만 목사 / 청년부



목사안수소감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베풀고 살아가는 목사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사안수를 받게 된, 유년부와 스팅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 임직을 받으며,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니, 정말 귀한 것들은 모두 다 주님께 거저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살아 숨 쉬는 호흡과 생명도,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올 수 있게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말씀을 주시며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만남들도’ 모두 저에게는 거저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베풀고, 살아가는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새기며,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받은 것을 베풀고,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게는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부르신 분을 믿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목회자로, 성도들의 아픔과 함께 하며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김경민 목사 / 유소년부



겨자씨이야기
5교구

모든 것을 주를 향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시 다스리소서♪ (Paul Kyle,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집, 142번, 주님의교회, 2008.)

매주 목요일 저녁 시간, 각 가정의 집에 모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탁 교제가 끝난 후 김관민 안수집사님의 인도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한목소리로 울려드리며 주님의 자녀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경건하고도 사랑이 충만한 순간입니다. 5교구인 우리 겨자씨의 이름은 A4L입니다. All for Lord, 즉 ‘모든 것을 주를 향해’ 머리글자와 소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며 2023년 현재 총 12명, 6가정이 함께 모여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A4L 겨자씨를 단단하면서도 한결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오시는 김관민 안수집사님·고경임 권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각 가정을 연결해주는 고운 마음의 유철민·남옥희 권찰 집사님 가정, 밝은 미소와 기도로 안아주시는 전종규·이혜경 집사님 가정, 유머와 따스함으로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고광곤·정구일 집사님 가정, 봉사과 사랑의 손길이 가득한 아름다운 한승철·류보현 집사님 가정, 사랑의 겨자씨에서 힘을 얻고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양선기·이영미 집사님 가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A4L 겨자씨의 모임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주 각 가정에서 준비한 저녁 식탁을 함께 하며 그야말로 겨자씨 ‘식구(食口)’가 되어 주님 안의 형제·자매의 정을 느낍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도 나누고 격려하며 지혜를 나누어 받습니다. 식탁 교제를 마친 후 그 주의 겨자씨 교재 성경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며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후 다가오는 한 주일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응원하며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소명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가기를 소망하며 모여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섬김, 협력 교회 선교부, 꿈꾸는 3막, 마더와이즈, 예배 안내, 학원 전도, 중보기도, 너나들이 및 떡 케이크 나눔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구원과 건강 등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중보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을 바라고 격려하며 기도로 서로 돕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함께 울려드립니다. 비록 약하지만 단단히 서가며 흠뻑 받은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을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열린 공동체,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는 A4L 겨자씨 모임에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이영미 집사 / 5교구 A4L 겨자씨

교사일기
유아2부

하나님 나라 금쪽이들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지난해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당 회차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와 부모를 분석하며 '내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을까'. '나는 더 나은 부모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금쪽이 박사'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첫 번째 '금쪽이'인 큰딸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준비를 잘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습계획표를 만들어 딸에게 나의 스트레스를 나눠 가지게 하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친정엄마께서 '다음세대'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 강의 영상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나면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 관련된 다른 말씀도 듣게 되었는데 아마도 엄마는 그때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들을 거듭하여 들을 때마다 찬물로 샤워한 듯 정신이 번쩍 들고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의 '금쪽이'만 문제없이 잘 크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가 세우는 계획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금쪽이 박사'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나의 '금쪽이'들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의 '금쪽이'들도 소중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금쪽이'인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는 것들을 왜 몰랐을까 자책하면서, 저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쫓아다니며 밥을 떠먹여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야 할까 하는데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떠먹여 주셨습니다. 우선, 해당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횟수를 줄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의 '금쪽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매 회 여러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진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그것보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최고의 솔루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아부 이은솔 전도사님께서 싹트네 교사로 함께해 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주신 것인데, 이 역시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이스 타이밍이었습니다. 영성만 손질, 발짚이지만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에 푹 빠지는 모습,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열심으로 성경말씀 암송하는 모습, 엉덩이를 들쭉이며 콩콩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금쪽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사인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아이들의 무조건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을 것 같아 자기도 너무 슬프다고 두 눈에 눈물이 맺히는 아이의 모습과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에 “살아났다”하며 박수 치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유아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심을 느껴 가슴 벅찼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금쪽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멋진 일꾼들이 되길,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함께 기도해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현미 집사 / 유아2부



하나님의 선교
4월 교회대청소

교회 대청소 - 부족한 민음을 감사로

할렐루야! 코로나로 한동안 못했던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정한 후, '과연 몇 분이 함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첫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늘 앉았던 예배공간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자고.. 예정된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식사 대신 음료와 떡을 준비하려는데 몇인분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모였는지 들어보니 어느 분께서 안수집사회 회원 50여명에 권사님들께서 20~30명정도 더 오실 것이니 70~80명으로 준비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100인분이면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맞춰 청소 비품도 준비하고 추가로 목회자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려 총 120인분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일 고난주간 새벽예배 도중에 염려와 걱정으로 미리 나와서 모임장소를 사전점검하는데 음료는 이미 전날 배치를 했고, 청소도구는 윤성태 집사님이 깔끔하게 준비해 주신 걸 확인하고 견과류 떡도 도착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잠시 흘러 여러 분들이 모이고 박민규목사님의 기도가 마친 후 눈을 떴더니 많은 분들이 모여계셨습니다. 남선교회 이명기 연합회장의 인사 후 청소 구역을 설명드렸는데 후에 들으니 제가 많이 흥분해서 전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청소구역 중 제3집회실과 찬양대실 설명도 빠뜨렸는데 경험이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다 챙겨주셨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특별히 정구민 목사님의 인도로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여 빠른 시간에 대청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인해 준비한 떡과 음료가 부족했습니다. 민음이 부족한 걸 감사(?)하며 떡과 음료를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마음을 남선교회 이름으로 보상하였습니다. 샬롬 남선교회 연합회

교회사용설명서⑤

상례에 대해 알아보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큰 예식을 전통적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관례(冠禮), 가정을 꾸리는 예식인 혼례(婚禮), 죽음을 애도하는 상례(喪禮), 조상에게 올리는 제례(祭禮)입니다. 대부분 유교적 전통에 의한 것이며, 현대에 이르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 피할 수 없는 것이 상례입니다.

유교에서의 상례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가족과 친척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상복을 입고, 시신을 염하고 묘지를 정하여 매장하며, 매장 후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의식과 절차를 정한 예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상례는 유교의 상례와 많이 다릅니다.

성도가 별세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가신 것이므로, 기독교인은 천국으로 가시는 고인의 영혼을 환송함과 함께 고인의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통 임종할 때, 입관할 때, 발인할 때, 하관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등록교인의 수가 1만 명이 넘는 주님의교회에서는 등록교인 및 가족이 별세한 경우 교회가 상례에 참여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례규정>을 만들어 상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서 지원하는 상례의 대상은 등록교인 및 배우자, 등록교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상례의 진행은 교회가 주관할 때, 교회가 주관하지 않을 때, 교회장으로 할 때로 구분합니다. 교회가 주관할 때에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를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주관하지 않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위로예배를 교회가 담당합니다. 교회장일 때에는 교회가 상례의 모든 절차를 유가족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교회장은 교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신앙적인 삶으로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교인이 별세했을 경우 당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회에 상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례위원회에서는 담임목사, 교구목사와 협력하여 본부와 교구에 상례팀을 두어 운영합니다. 상례는 교구별로 교구목사 주관하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교인이나 교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별세했을 때에는 우선 교구목사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즉시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상례팀이 유가족께 연락을 드리고 예배를 논의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관하는 천국환송예배에는 사역팀인 하임 찬양대가 조가를 부르며 유가족들과 함께 환송하고 있습니다 '하임'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기독교에서 성도가 임종했을 때 흔히 '소천(召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를 소(召)'와 '하늘 천(天)'으로 이루어진 이 용어는 일반적인 한자어의 조어 방법으로 보아 '하늘을 부르다'라는 뜻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통 '부를 소(召)'가 포함된 단어는 '소환(召還, 돌아오도록 부르다)', '소집(召集, 어떤 조직의 구성원을 부르다)'과 같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이라면 '천소(天召)'라고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면서 '소천'이라는 말이 한국의 여러 문헌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한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에도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초기 가톨릭 용어에서 전이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현행 가톨릭용어사전에도 이 단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서도 '소천'이라는 용어 보다는 '별세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2001. 9. 8, <잘못된 기독교 용어 이렇게 바꾸자 / (4)장례부문>)

함글함글

가정의 주일

감사한 마음 담아

5월 첫째 주일인 7일은 가정의 주일(어린이와 어르신주일)로 지켰다. 교회에서는 만 70세 이상인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된 케익을 1층 로비에서 가정당 1개씩 선물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가졌다.

신형섭 장로



교회일정

- 5/14(주일) 유아세례식
향촌직 선거1차 공동의회
정기당회
- 5/21(주일) 향촌직 선거2차 공동의회
- 5/29(월) 무지개잔치

알립니다

1. 2022 / 2023년 공동의회 통합 향촌직 선거(1차, 2차)
일시 : 5/14(주일), 5/21(주일) 오전 8:00 ~ 오후 3:00
방법 : 문자로 전송받은 링크 통해 전자투표 또는
다목적홀(지하)에서 전자투표
선출인원 : 장로(10명), 인수집사(20명), 권사(20명)

2. 전교인 무지개잔치 연기 안내

5월 5일(어린이날) 준비하였던 전교인 무지개 잔치를
우천으로 인해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결혼예비학교 제21기 모집

- 모집기간 : 5/21(주일)까지
회비 : 4만원(커피당)
대상 :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결혼 후 1년 이내)
신청 : 박준범 전도사(010.7164.5324)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 416-5181 ~ 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자녀에게는 기쁨을, 교우에게는 예배의 회복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2023년 전교인 무지개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지개잔치

5.29(월)
- 대체공휴일 -
9:30 AM ~ 3:00 PM
주님의교회 및 정신여고 운동장
문의) 02-416-5181

기쁨과 회복

플레이존
에어바운스, 바이킹, 우주선,
고카트라이딩, 전동기차,
사격존, 인생네컷(포토존)

푸드존
푸드트럭(다과야끼, 닭강정,
살찐도그) 떡볶이, 술러시,
시원한 음료, 팝콘, 솜사탕,
소프트 아이스크림, 향토음식

패밀리존
페이스페인팅, 키팅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팔찌 만들기,
squishy cross, 달고나 왕,
스타킹 타임어택, 풍당풍당
공깃돌을 던져라, 풍선아트

교구행사존
9:30~12:00
큰 공 굴리기, 신발던지기,
기둥을 세워라, 박 터트리기

게임존
추억의 두더지잡기,
농구게임, 해머치기

교육부존
유유청정 교육사역 안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편 30:11

주님의교회 무지개잔치

2022, 2023년 통합
공동의회 향촌직 선거공고

선거일시

- 1차 선거 : 2023. 5.14(주일) 08:00 - 15:00
- 2차 선거 : 2023. 5.21(주일) 08:00 - 15:00
- * 1차 선거에서 선출예정 인원이 미달될 경우 2차 선거를 실시함.

투표장소

- * 이번 향촌직 선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투표로만 진행 예정
- *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 요청.

투표권자

- * 주님의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 * 향촌직 선거 시행공고일(2022년 12월 18일 기준)

선출인원

- * 장로 10인, 인수집사 20인, 권사 20인

선출기준

- * 장로 - 총 유효 투표자의 2/3 이상 득표자
- * 인수집사, 권사 -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선거결과 발표

- * 1차 선거 결과 : 2023. 5.17(수) 수요일에 후
- * 2차 선거 결과 : 2023. 5.24(수) 수요일에 후

투표방식

- * 이번 향촌직 선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투표로만 진행 예정.
- * 1차, 2차 선거 당일 문자메세지로 전자투표 사이트의 주소가 전송되며,
스마트폰(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하여 투표.

2023년 4월 30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아름다운 성도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님의교회

VISION TRIP

온.오프라인 비전트립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온라인

코스타리카 (금상호 선교사)
일정 : 2023. 8. 4(금)
담당 : 이대형, 배원환 목사 / 유정아 권사

키르기스스탄 (윤바나비 선교사)
일정 : 2023. 7. 23(주일) - 31(월)
담당 : 이종성 목사 / 신성일 안수집사

베트남 (최화영 선교사)
일정 : 2023. 7. 31(월) - 8. 5(토)
담당 : 윤경수 목사 / 김미선 집사

필리핀 (유성훈 선교사)
일정 : 2023. 7. 26(수) - 7. 31(월)
담당 : 한시영 목사 / 이재훈 안수집사

* 모집기준 : 선착순 (최대 15명 + 예비 10명)
* 연평제한 : 만 70세 이하 / 초등학교생 (보호자 동반)

2023년 4월 30일
주님의교회 비전트립위원회